

광주 문화콘텐츠 전남 농어업기술 北 전수 선도해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 광주·전남 남북교류 대응책 시급

정상회담 이후...2·3·6·16·22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가 점차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이어질 북한 내 기반시설 설치 지원, 남북 경제협력 및 문화·체육·민간 교류, 물자 지원 등에 있어서 호남이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 정책기조에 반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업의 메카인 전남도의 경우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직접적인 현물 지원을 물론 종자 개량, 양식·가공기술 등을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밸리, 친환경 자동차밸리, 에너지밸리 등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역시 기존 사업계획에 남북 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등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을 실질적으로 잇는 후속 대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의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 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남북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해 대륙철도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이 계획에는 경의선의 문산~도라산~판문점~개성, 동해선의 제진~갑호~금강산, 경원선의 신탄리~백마고지~철원~월정리~평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연결할 경우 한반도를 관통

해 중국(TCR), 시베리아(TSR) 등을 잇는 유라시아대륙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남북철도 통합 운영을 위해 북한 철도 개보수 및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궤간 차이 극복 등 대륙철도 운송을 위한 기반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호남축이 희미하다는 점이다. 지난 1999년 국가간교통망 계획에 포함됐다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에서 제외된 후 지난 2016년 6월 확정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다.

광주와 전남도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수정계획 등에서 대륙 간 철도,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기·종점목표·부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호남축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광주공화국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무안공항을 국토 서남권 주축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양, 중국 연변 등의 노선을 개척, 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연구원 차원에서 북한과 호남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계속된다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점을 부산과 목포로 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광주·전남이 선도할 수 있는 남북사업을 서둘러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핵실험장 5월 폐쇄·표준시 서울로 통일”



미술공연 화기애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미술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靑 “한미 전문가·언론인 초청 투명 공개 ... 정상회담서 합의” 김정은 “표준시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27일 정상회담에서 다음 달 북한의 핵 실험장 폐쇄를 대외에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

운영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북부 핵 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으로 초청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김 위원장이 ‘못 쓰

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두 개의 경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견제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시 환영했고, 양 정상은 준비되는 대로 일정을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와 대화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 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

라며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조선전쟁(6·25 한국전쟁 의미)의 아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았다. 한민족의 한 강토에서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코 무력 사용은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남북 정상은 또 현재 북한의 시기가 한국의 시각보다 30분 늦는 남북의 표준시 역시 통일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평화의집 대기실에 시계가 두 개가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시간, 다른 하나는 평양시간을 가리키고 있어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같은 표준시를 쓰면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이 전했다.

한편, 정상회담 정례화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번 정상회담을 가을에 평양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분 정상의 대화에서 평양·서울·제주도·백두산 얘기가 주축 나왔고, 김 위원장도 청와대에 오겠다는 의지를 말했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빨리 개최·장소 2~3곳 압축”

문재인대통령과 전화 통화 “북 완전한 비핵화 긴밀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저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시간 15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면서 북

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했다.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을 축하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고대하고 있으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매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또 이날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

담 성공 모델임을 유지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였으며, 장소에 대해서는 2~3곳으로 후보지를 압축하며 각 장소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이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무용·피아노 입상자 ▶17면
원정팬 많은 KIA 4승10패 부진 ▶20면

무안공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트어와 함께 하세요! 주~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마츠모토(나가노), 방콕, 다낭, 제주도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2018년 5월 13일(일)~ 정기편 운항 주 3회 출발 / 매주 화요일(3박4일) / 금, 일요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큐슈 품격 특가** 단, 4회(5/8(화), 5/15(화), 5/22(화), 5/27(일))

2박3일 기타큐슈(일 출발) 3박4일 기타큐슈(특급 2박 / 고급 온천료만 1박)
◆ 한정특가 499,000원~
399,000원~ ◆ 야미구치품격 699,000원~

무안 ↔ 마츠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츠모토관광]

2018년 5월 18일(금)~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마츠모토(13:10) / 마츠모토(13:30) → 무안(16:20)

[품격] 나가노,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3일(고급료만 숙박) 일요일 출발 938,000원 금요일 출발 998,000원

[품격] 나가노, 나고야,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4일(고급료만 숙박) 화요일 출발 1,198,000원

★ 알펜루트 전코스 관광(숙박 기간: 4/15~6/22)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전 코스관광)

★★★ 일본 최고의 절경 북 알프스 관광 ★★★

★ 나가노현의 오오기사와역에서 다테야마 연봉 무로토까지의 대자연열 캐리비카, 고원버스, 로프웨이 등으로 이동하는 왕복 산악 루트를 달것으로 이동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만끽하며 5시간 산책 하는 코스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 5월 18일(금) 이후 주우욱~

주 2회 출발 / 매주 화(3박4일), 금요일(3박5일)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4: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탑)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념품, 배개, 비디오 상영

5월 가정의 달 3박4일 한정 특가 499,000원~

[골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호이안 · 핫스프링 3박4일(화) 66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2박3일(주중) 299,000원~. 2박3일(주말) 379,000원~

지중해 크루즈 10일
(모스크바,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무안 ↔ 오사카 정규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2018년 4월 30일(월)~ 매주 월, 목요일(3박4일) / 수, 금요일(2박3일)

◆ 오사카, 나라, 교토 2박3일 699,000원~ 출발일: 6/15(금), 6/20(수)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고베 3박4일 899,000원~ 출발일: 6/11(월), 6/28(목)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규편(제주항공)

2018년 5월 2일(수)~ 매주 수, 목요일(3박5일) / 토, 일요일(4박6일)

◆ 준특급호텔 649,000원~ ◆ 특급호텔 699,000원~ (6/20(수) 출발 확정)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상품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비용: 1인 기준, 국내항공: 5천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관광 및 부수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차/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명당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기간: 1인 기준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 1인당, 기차/기타도 통신회, 선착안, 관광 비자비용 별도. ※ 최소승인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어